

#. 용의자 브리핑

빔프로젝트 불 빛이 보이며 스크린에 최근 발생된 강력범죄에 대해 강력반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형사: (반장을 보며 또박또박 서울말씨로 위엄있게 이야기한다) 복가좌 마상동에서 04시 변사체로 발견된 20대 청년입니다. 무기는 상처의 각이 예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야구방망이나 등근 몽치 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사건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면식범행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봤는데 너무 안됐습니다. 홀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사는 청년인데 새벽에는 수산시장에서 낮에는 오토바이 배달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사건 발생 당시의 주변 CCTV를 하나도 채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야기 인 즉 사건 발생일, 그 시간 때만 주변 모든 CCTV렌즈가 키는 170센치 정도로 추정되는 복면을 쓴 정체불명인으로부터 청태인으로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약간은 어리숙하며 모자른 표정을 하며 폰수처럼 혼잣말을 하기 시작한다/ 할 수 있는 지역사투리가 있다면 갑자기 튀어나와도 좋다) 아~그 많고 많은 테잎중에 하필 젤 안떨어지는 청태인으로 막 덕지덕지 말아서 뜯는데도 드럽게 힘들게 말입니다. 그 새끼 누군지 성질 머리 드러운 새끼인게 확실합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그냥...

반장: (갑자기 형사의 말을 끊으며 치고 들어온다) 됐어 됐어! 그만해! 그리고 넌 왜 흥분하면 사투리로 말하고 지랄이야. 그것도 격 있는 서초구에서 근무하면서 말이야.

형사: (약간은 멧적은 듯 조심스레 머리를 긁으며 말한다) 아~~반장님...반장님도 제 고향 선배님 아니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루 아침에 변하면 죽는다던데....

반장: (서류를 집어 던지며 말한다) 야! 들어가~들어가!!

형사: (차렷 동작을 하며 절도 있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며 혼잣말로 계속 궁시렁 거린다/ 에드리를 쳐도 좋을 듯하다) 내 이자식을 잡기만 하면 그냥 막 척추를 풀더처럼 접어서 청송에다가 A/S 보내버리고 만다.